

국소진행 후두암에서 상윤상후두부분적출술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

홍성진 · 조광재 · 방충일 · 선동일 · 박영학 · 조승호 · 김민식

목 적 : 상윤상후두부분적출술은 진행된 후두암에서 적용하였을 때 만족할만한 종양학적 및 기능적 결과를 보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. 국소 진행된 후두암에서 이술식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양학적 및 수술 후 기능적 결과를 알아보았다.

방 법 : 199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후두암으로 진단 받고 상윤상후두부분적출술을 시행하였던 환자 총 88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평균 관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환자 중 T2b이상의 국소 진행암 환자 46명에서 종양학적 결과를 살펴보고, 전체 환자의 수술 후 캐놀러의 발관기간, 구강을 통한 음식섭취 가능기간, 합병증 유무, MBS 시행환자 37명에서의 결과를 분석하였다

결 과 : 대상 환자는 남자 85명(96.5%)으로 평균 연령은 60.5세였으며, 발생부위로는 성문암 77명(87.5%)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. 부성문강 침범이 있는 경우 이상와 점막으로부터 부성문강을 충분한 절제연을 두고 제거할 수 있

음을 병리학적으로 확인하였다. T2b 이상의 국소 진행암 46명중 11명에서 재발이 발견되었으며 국소재발 7명(63.6%), 경부재발 4명(36.3%), 원격전이 3명(27.2%)이었다. 이들중 7명을 구제술로 구제할 수 있었다. 기관발거는 평균 17.3일, 구강을 통한 음식물의 섭취는 평균 25.6일에 가능하였다. 술 후 평균 18병일에 MBS시행한 환자 총37명중 초기 30%이상 흡인이 89.2%에서 보였으나 원인분석에 따른 연하훈련으로 7일후 모두구강섭취가 가능하였다. 수술 후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이 14명, 만성흡인이 3명, 인두-피부누공이 3명, 기도협착 3명, 그 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2명에서 있었다.

결 론 : 상윤상후두부분적출술은 국소 진행암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법이라고 생각되고 술후 연하 재활에 MBS를 이용하면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연하 재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